

Since Oct. 10, 2004
해외 한인 장로회

Church of the Lord



하나님의 사랑교회
(통권 1109호)

Jun. 07. 2026

오늘의 말씀

“평안의 복음과 믿음의 방패”

[에베소서 6:15~16]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담임목사 정석진

David Seokjin Chung / Senior Pastor
Cell 551.999.5358
pastor.ds.chung@gmail.com

5 Old Dock Rd.
Alpine, NJ 07620
Tel. 845.398.0691, 201.767.1004
Fax. 845.398.1365
www.churchofthelord.org

서론 ~ 전쟁에는 반드시 무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칼입니까? 갑옷입니까? 아닙니다. 발입니다. 발이 미끄러지면 모든 무기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전략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 다음으로 신발과 방패를 이야기합니다.

본문 강해

바울은 먼저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이라고 합니다.

왜 신일까요?

[엡 6:15]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로마 군인들은 전투용 샌들(caligae)을 신었습니다. 그 샌들에는 바닥에 징이 박혀 있었습니다. 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신이 가진 영적 의미가 분명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보다 흔들어 놓는 것을 좋아합니다. 불안, 염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사탄은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바울은 이 신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평안은 무엇인가요? 헬라어에서 이 평안은

[εἰρήνη(에이레네)]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שָׁלוֹם(shalom)]입니다. 이 단어들은 단순한 마음의 안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외적인 요인에 기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평안입니다. 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롬 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즉, 복음은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평안을 공격합니다. 왜입니까? 평안을 잃으면 사람은 스스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열왕기상 18장에서 우리는 엘리야가 갈멜산 기도의 싸움에서 850:1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승리가 있는 직후에 19장에 들어가면서 이세벨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이세벨의 이 이야기에 갑자기 엘리야가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급작스런 절망감이 엘리야에게 덮쳐왔고, 그래서 갑자기 모든 것을 잃고 도망을 칩니다. 환경이 크게 변화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면의 평안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하게 밸런스를 잃게 만드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 다음으로 바울이 언급하는 무장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이 믿음의 방패를 “모든 것 위에” 두라고 합니다.

[엡 6: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기에서 방패는 [θυρεός(튀레오스)]입니다. 이 방패는 작은 방패가 아닙니다. 문짝만 한 대형 방패로서 온몸을 가려주는 방패입니다.

우리에게 왜 이 방패가 필요할까요? 사탄이 불화살을 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불화살은 [πεπυρωμένα βέλη(페튀로메나 벨레)]입니다. 문자 그대로 불붙은 화살입니다. 로마 시대의 군인들이 화살 끝에 기름 묻힌 천을 감고 거기에 불을 붙여 쏘았습니다. 적들은 방패로 그 화살을 막아내지만 그 방패에 불을 붙여서 방패가 무용지물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공포를 주는 무기였습니다.

바울이 이 불화살을 사탄의 공격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탄은 성도들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그것은 두려움, 정죄, 의심, 분노, 낙심, 절망... 이런 불화살이 사탄으로부터 갑자기 날아옵니다. 우리가 방패로 막지만 그 방패에 불을 붙여서 모두 태워버려서 무방비 상태가 되게 합니다.

그런 사탄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긍정적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달리 이야기합니다.

“믿음[πίστις(pistis)]”은 “신뢰, 의존, 확신”입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것을 붙든다” 라는 선언입니다. 단순히 긍정적 사고를 가지는 것이 상황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 가운데 서야 합니다.

이 믿음의 방패가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은 사탄이 쏜 불화살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다윗이 다윗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골리앗의 위용이 전혀 안 보이는 아이처럼 행동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가 다 두려워 구멍을 파고 숨었는데, 다윗은 다만
목자의 지팡이와 물매 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려 나아갔습니다.
골리앗이 기가 막혔습니다. “네 눈에는 내가 개로 보이느냐? 너, 개
몰러 나왔느냐? 이스라엘에는 나와 싸울 장수가 이렇게도
없느냐?”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삼상 17:45~47]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6)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런 가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 또한 가나안의 아낙 자손들을 보고
기가 질렸던 다른 정탐군들과는 달리, 그들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더 크게 보았던 믿음의 방패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언합니다.

[민 13:30]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민 14:6-9]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7)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소위 믿음 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들 곁에 다가오는 모든 상황들
보다 견고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항상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다가오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실제입니다.

사탄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성도를
낙심하게 만들고, 결국 의지를 내려놓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방패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2주 전, 우리의 시리즈 둘 째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Condition vs. Po-sition의 말씀을 다시 상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이유는 믿음 자체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표현처럼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위대하신 구주를 붙들면 승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잡고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승리는 우리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복음 위에 서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 지금 내 평안을 빼앗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 나는 상황을 보고 있는가, 약속을 보고 있는가?

~ 내 손에는 믿음의 방패가 들려 있는가?

오늘의 기도 포인트입니다.

~ 평안의 복음 위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 사탄이 쏘는 두려움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를 굳게 잡아
막아내게 하소서

~ 우리 앞에 다가오는 대적과 거친 환경들보다 하나님과 그의
약속들을 더 크게 보게 하소서